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0. 06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0. 06

대구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9
2. 생산 11
3. 소비 14
4. 투자 16
5. 건설 17
6. 교역 19
7. 고용 20
8. 물가 23
9. 금융 24
10. 부동산 26
11. 중소기업 29

BIG DATA 30

1. 이달의 키워드 30
2. 이달의 이슈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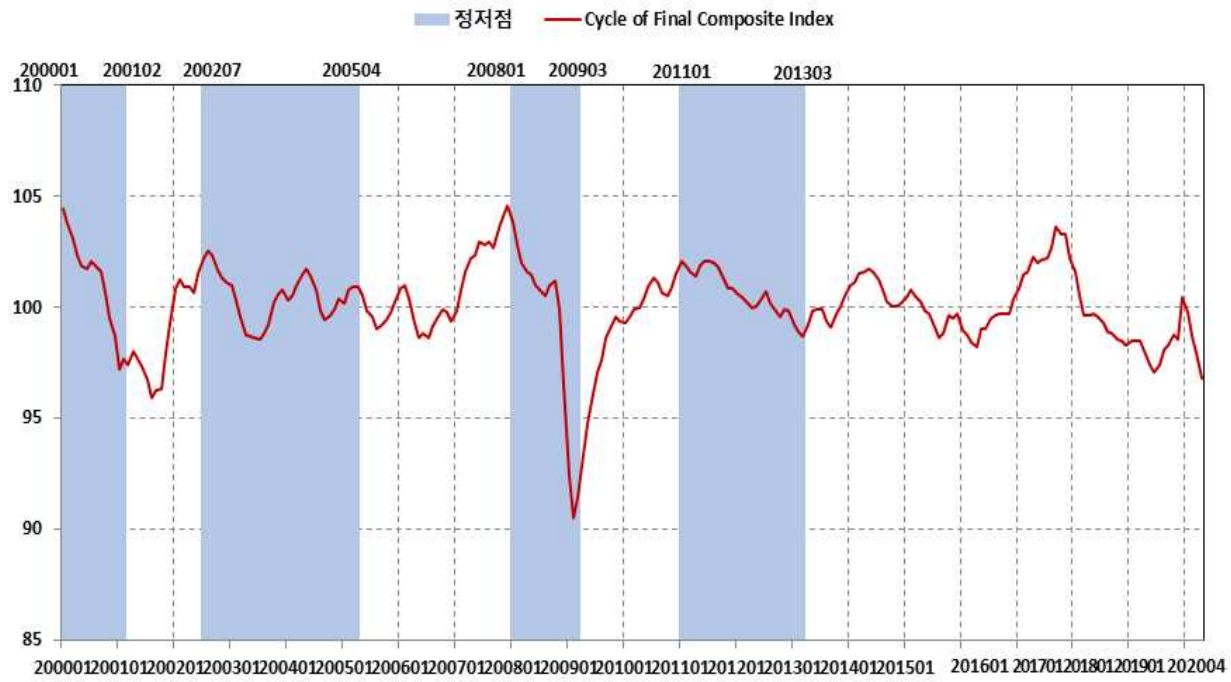
경북경제동향 개관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0.04
	BSI	20.06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0.05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05
	신용카드사용액	20.04
투 자	자본재수입액	20.05
건 설	건축허가면적	20.05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0.05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0.05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0.06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0.04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0.06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20.05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0.05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0.04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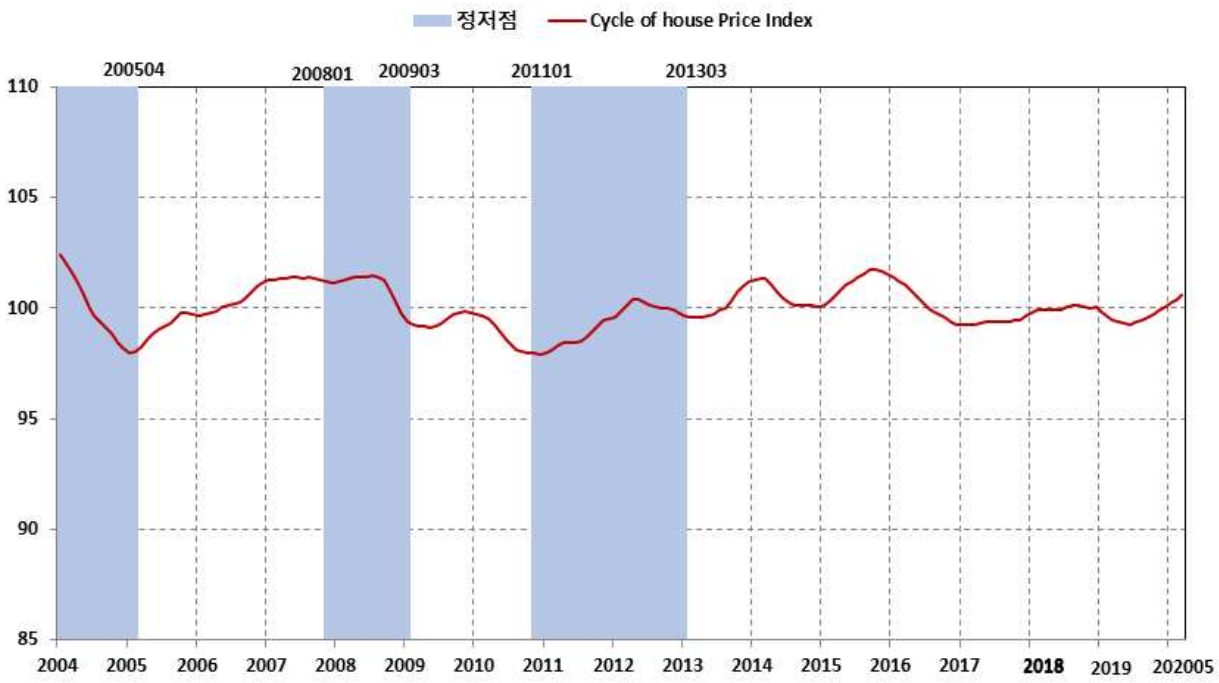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Summary

경기

전월대비 증감

경기종합지수(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96.0	1.1%	1.2p	96.8

기업경기실사지수(6월)

제조업			비제조업
41	6p	2p	41

생산

전월동월대비 증감

광공업생산지수(5월)

생산		출하		재고	
75.3	15.7%	74.3	16.5%	112.1	3.3%

소비

전월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5월)	신용카드사용액(4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5월)
82.9	8,584억 원	6,838대
5.3% ▼	12.9% ▼	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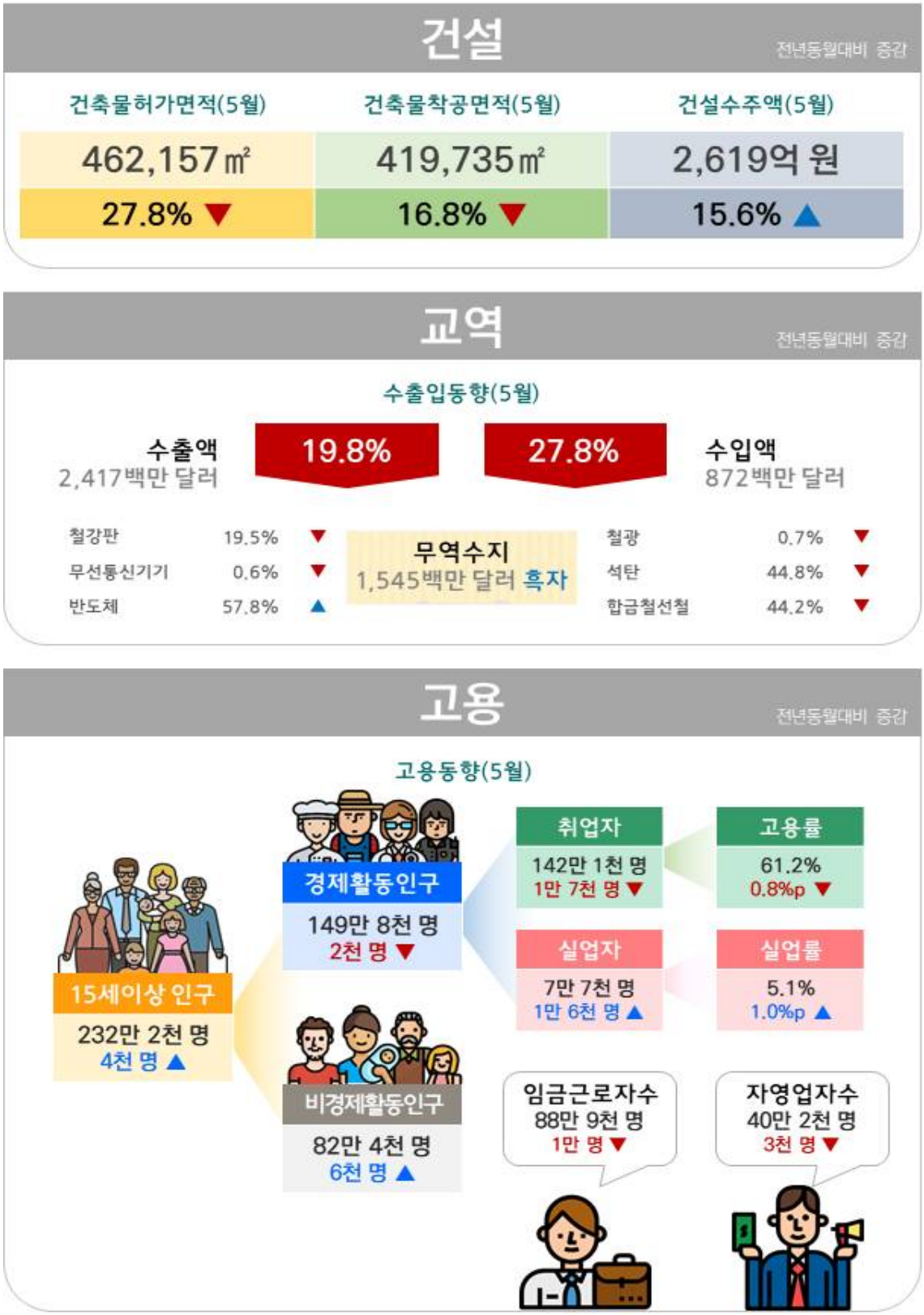
투자

전월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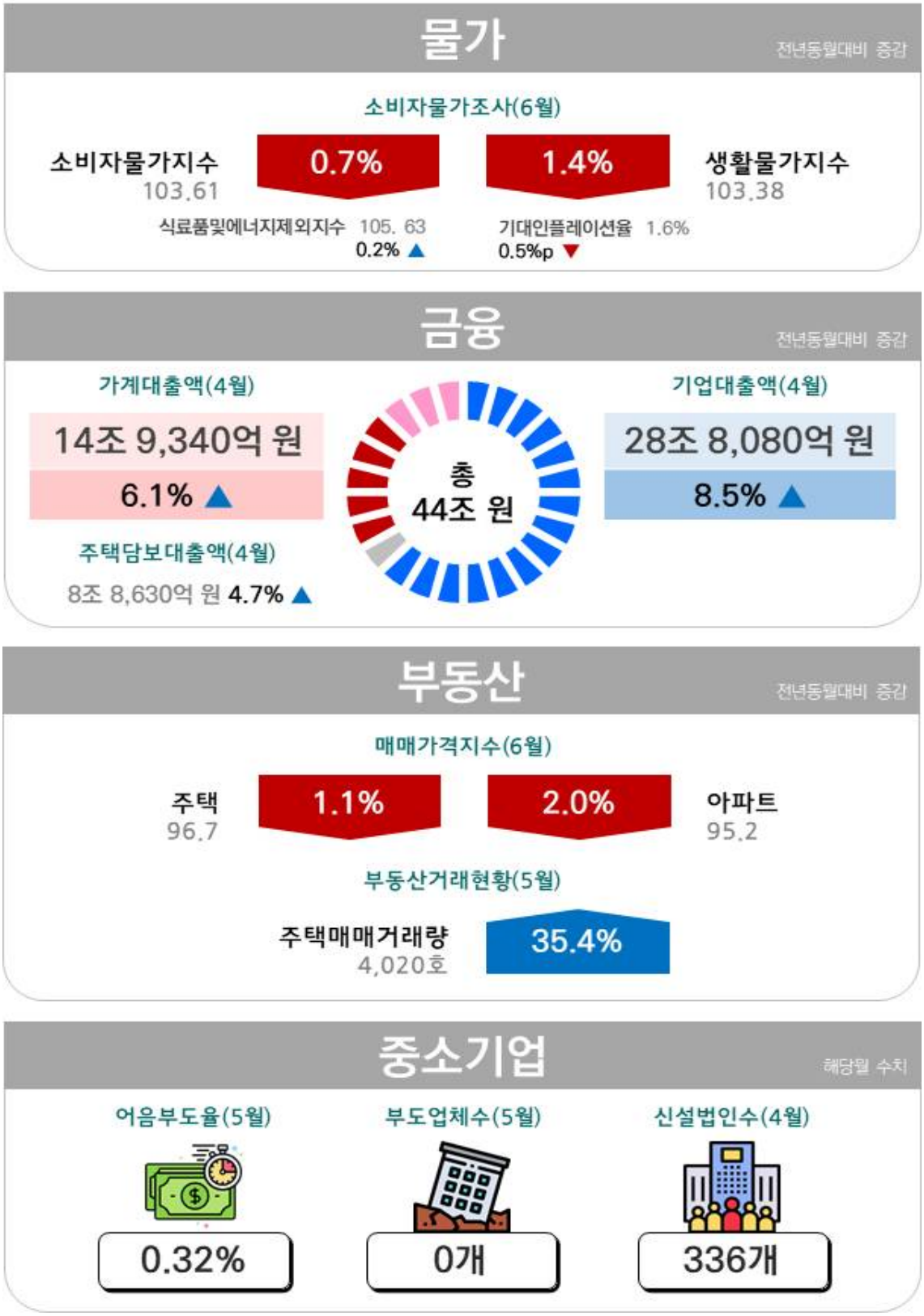
자본재수입액(5월)

136,568천 달러
39.0% ▼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2020년 4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1.1% 하락

○ 동행종합지수 96.0으로 전월대비 1.1% 하락, 순환변동치 96.8로 전월차 1.2p 감소

- 구성지표 중 제조업전력사용량(0.2%), 수출액(실질)(2.0%), 수입액(실질)(2.9%)은 증가, 비농가취업자수(-2.1%),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14.5%),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1.2%),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3.3%)는 감소

2020년 4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1.1% 감소

○ 동행종합지수 110.9로 전월대비 1.1% 감소, 순환변동치 97.3으로 전월대비 1.3p 감소

- 구성지표 중 수입액(1.8%)은 상승, 광공업생산지수(△1.8%), 서비스업생산지수(△2.6%), 건설기성액(△0.6%), 소매판매액지수(△0.7%), 내수출하지수(△1.2%), 비농림어업취업자수(△1.1%)는 하락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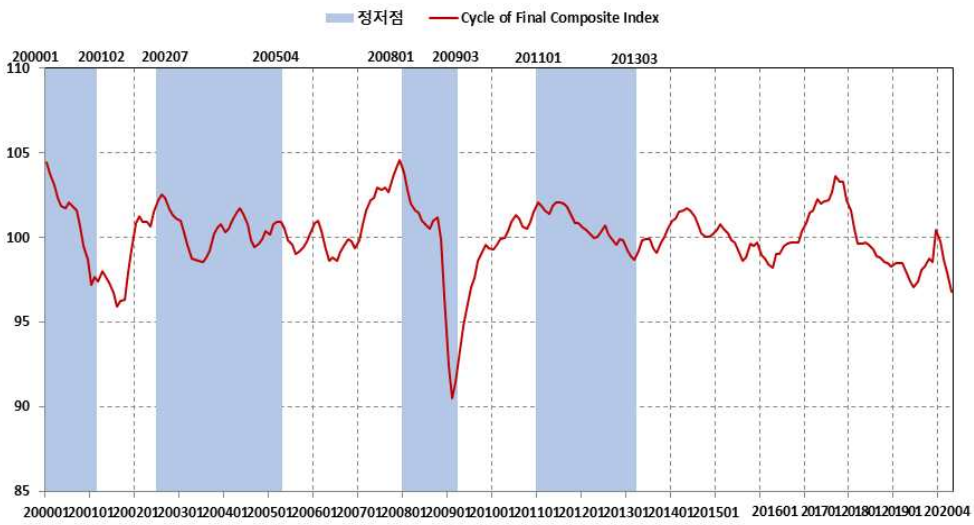
(2015=100)

구 분		2019		2020			
		11	12	01	02P	03P	04P
경북	동행종합지수	98.6	99.0	98.6	97.8	97.1	96.0
	전월대비(%)	-0.2	0.4	0.0	-0.8	-0.7	-1.1
	순환변동치	98.6	100.5	99.8	98.7	98.0	96.8
	전월차(p)	-0.1	1.9	-0.3	-1.1	-0.7	-1.2
전국	동행종합지수	112.7	113.3	113.8	113.3	112.1	110.9
	전월대비(%)	0.1	0.5	0.4	-0.4	-1.1	-1.1
	순환변동치	99.9	100.2	100.5	99.8	98.6	97.3
	전월차(p)	-0.1	0.3	0.3	-0.7	-1.2	-1.3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6월
제조업 BSI
비제조업 BSI
전월대비 각각 증가

6월 제조업 BSI는 41, 비제조업 BSI는 41

○ 제조업 업황BSI는 41로 전월대비 6p, 7월 업황 전망BSI는 38로 1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38로 전월대비 4p 감소, 7월 전망은 39로 보합
- 생산BSI는 45로 전월대비 4p 감소, 7월 전망은 44로 보합
- 채산성BSI는 49로 전월대비 5p, 7월 전망은 52로 2p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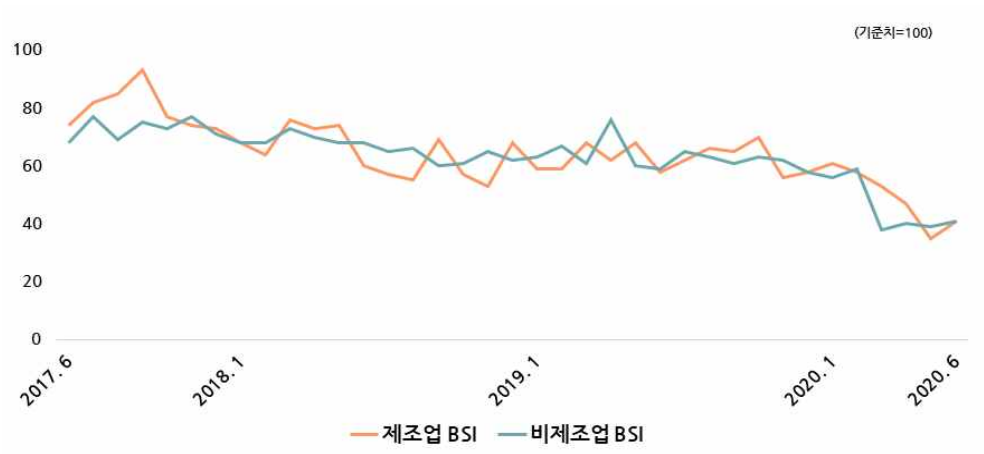
○ 비제조업 업황BSI는 41로 전월대비 2p 증가, 7월 업황 전망BSI는 39로 1p 감소

- 매출BSI는 48로 전월대비 4p 상승, 7월 전망은 44로 보합
- 채산성BSI는 50으로 전월대비 4p, 7월 전망은 50으로 3p 각각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19		2020						
	11	12	01	02	03	04	05	06	07
제조업 BSI	56 (67)	58 (56)	61 (57)	58 (62)	53 (62)	47 (51)	35 (45)	**41** **(37)**	– **(38)**
비제조업 BSI	62 (60)	58 (55)	56 (53)	59 (54)	38 (57)	40 (40)	39 (41)	**41** **(39)**	– **(38)**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0년 6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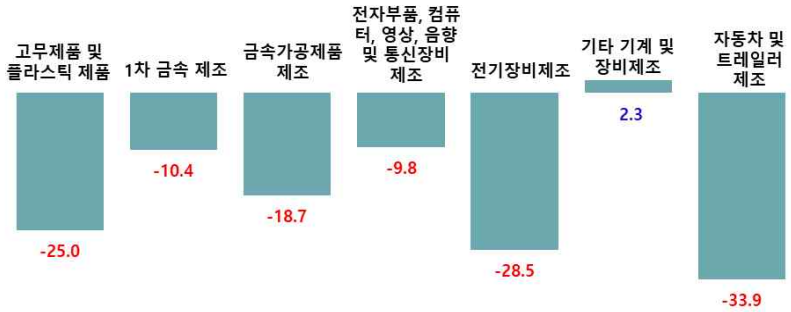
생산

5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재고 증가

광공업생산지수는 75.3으로 전년동월대비 15.7%, 전월대비 6.6% 각각 하락

○ 광공업생산지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 전기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금속가공 제조 등에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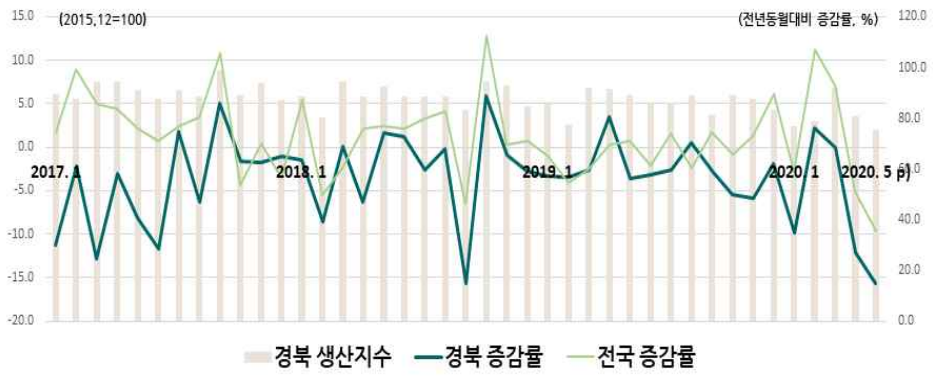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전기·가스·증기업(3.1%), 식료품(8.0%), 기계장비(2.3%)는 증가
- 자동차(-33.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8%), 화학제품(-27.2%) 등은 감소
-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은 휴대용전화기, 기타LCD 등이며 화학제품은 반도체용식각제,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등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p	05p
88.8 (-2.5)	87.6 (-5.8)	83.3 (-1.9)	77.4 (-9.5)	78.9 (2.1)	91.6 (-0.7)	**80.6** **(-12.1)**	**75.3** **(-15.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16.5%, 전월대비 4.6%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기계장비(11.6%), 식료품(6.7%), 전기·가스·증기업(2.3%)은 증가, 자동차(-34.1%), 전기장비(-40.0%), 1차 금속(-10.7%) 등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p	05p
90.4	91.0	84.8	74.5	79.0	92.7	**77.9**	**74.3**
(-1.6)	(-3.3)	(-1.7)	(-15.1)	(-1.9)	(-1.5)	**(-15.0)**	**(-16.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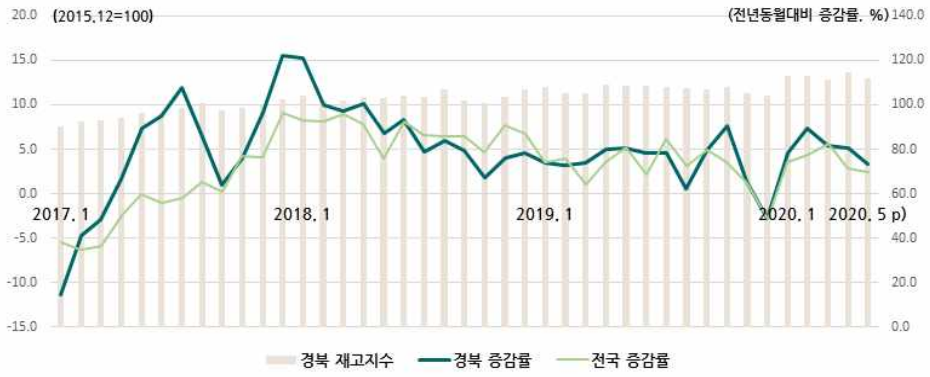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전월대비 2.2% 하락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기계장비(5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9.4%), 자동차(20.7%)는 증가, 전기장비(-22.0%), 고무 및 플라스틱(-13.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5.4%) 등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p	05p
107.1	105.2	104.2	112.7	112.9	111.1	**114.6**	**112.1**
(4.6)	(1.3)	(-2.7)	(4.4)	(7.4)	(5.4)	**(5.1)**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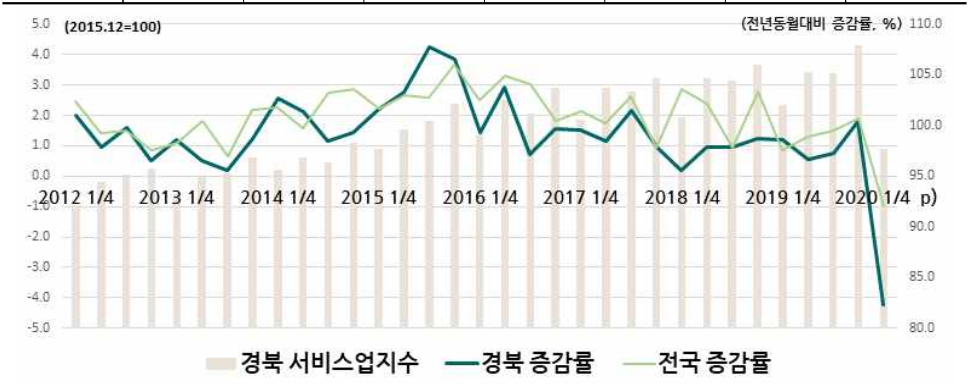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1/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4.2%, 전기대비 9.5% 각각 하락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8			2019				2020
2/4	3/4	4/4	1/4	2/4	3/4	4/4p	1/4p
104.7	104.4	106.0	102.0	105.3	105.2	**107.9**	**97.7**
(1.0)	(1.0)	(1.2)	(1.2)	(0.6)	(0.8)	**(1.8)**	**(-4.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5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5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5.3% 하락, 전월대비 9.2% 상승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생활방역 전환 등 정책 효과로 두 달 연속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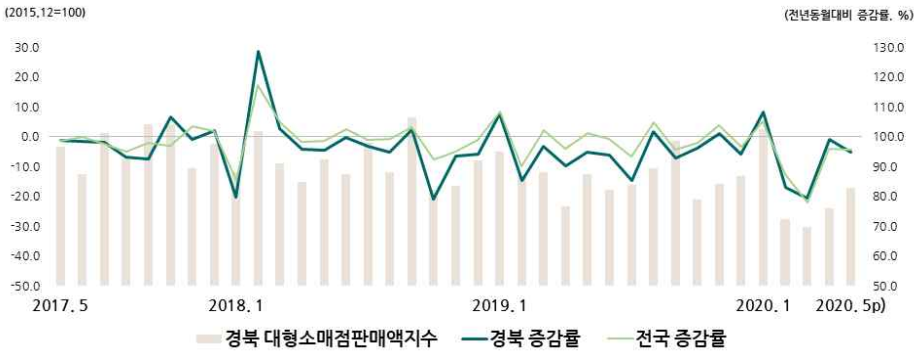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82.9로 전년동월대비 5.3% 하락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5.4로 전년동월대비 4.3% 하락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84.3으로 전년동월대비 4.6%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가전제품(22.2%), 기타상품(4.6%)은 증가, 신발·가방신발·가방(-26.1%), 화장품(-19.3%), 의복(-12.1%), 오락·취미·경기용품(-10.9%), 음식료품(-6.5%)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p	05p
대형 소매점	91.3 (-3.9)	84.2 (1.0)	86.6 (-5.8)	102.5 (8.1)	72.2 (-16.9)	69.8 (-20.8)	**75.9 (-0.9)**	**82.9 (-5.3)**
대형마트	93.6 (-3.6)	83.0 (0.5)	87.0 (-5.4)	106.6 (9.0)	76.3 (-14.2)	76.3 (-14.8)	**79.3 (3.3)**	**84.3 (-4.6)**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20년 4월 신용카드사용액은 8,58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9% 하락

○ 금융·보험(83.5%), 전자상거래·통신판매(26.7%)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의류·잡화(-30.1%), 숙박·음식(-28.9%), 오락·문화(-19.0%)의 사용액 감소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09	10	11	12	01	02	03	04
990.2 (-3.2)	1,045.9 (2.4)	1,036.3 (3.3)	1,054.7 (4.6)	1,034.6 (6.2)	867.4 (-1.9)	794.1 (-20.8)	**858.4** **(-12.9)**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5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838대로 전년동월대비 8.5% 상승

○ 일부 신차 흥행 및 수출지연으로 인한 내수 물량 확대로 지역 신규등록대수 상승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	05
75,810 (-6.7)	7,317 (4.8)	6,612 (15.0)	6,168 (-15.2)	4,430 (-7.7)	6,209 (-0.8)	6,585 (-0.8)	**6,838** **(8.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8	75,810	57,846	2,225	15,150	589
2019	74,747	56,693	2,050	15,369	635
2019. 11.	7,317	5,575	156	1,470	116
12.	6,612	5,312	150	1,083	67
2020. 1.	6,168	6,693	169	1,255	51
2.	4,430	3,204	145	1,028	53
3.	6,209	4,717	160	1,268	64
4.	6,585	5,000	162	1,350	73
5.	6,838	5,447	174	1,172	45

투자

5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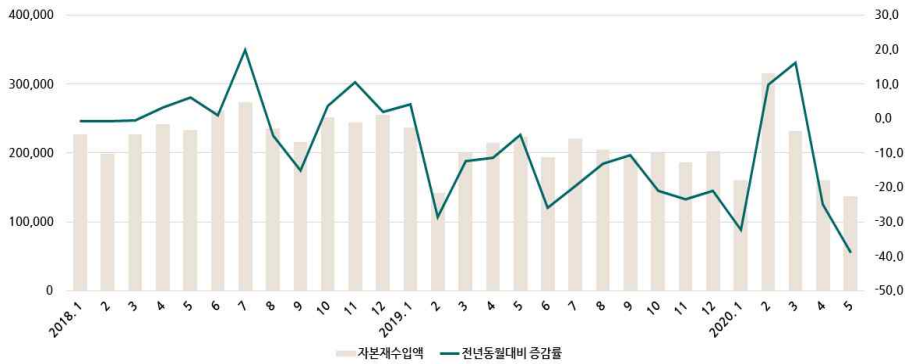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136,568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9.0% 하락

- 품목별로는 기계 및 정밀기계(-54.4%), 전기 및 전자기기(-21.5%)는 감소, 수송장비(부품)(0.2%)는 증가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19			2020				
10	11	12	01	02	03	04	05
200,332 (-20.9)	186,671 (-23.4)	201,795 (-21.1)	160,112 (-32.3)	315,353 (9.7)	231,445 (16.2)	160,600 (-25.0)	**136,568** **(-39.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대구본부세관 "2020년 4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통관 실적"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5월 건축물허가면적, 건축물착공면적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7.8% 하락한 462,157㎡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45.5% 감소한 57,575㎡, 상업용은 16.9% 감소한 81,252㎡, 공업용은 9.5% 감소한 79,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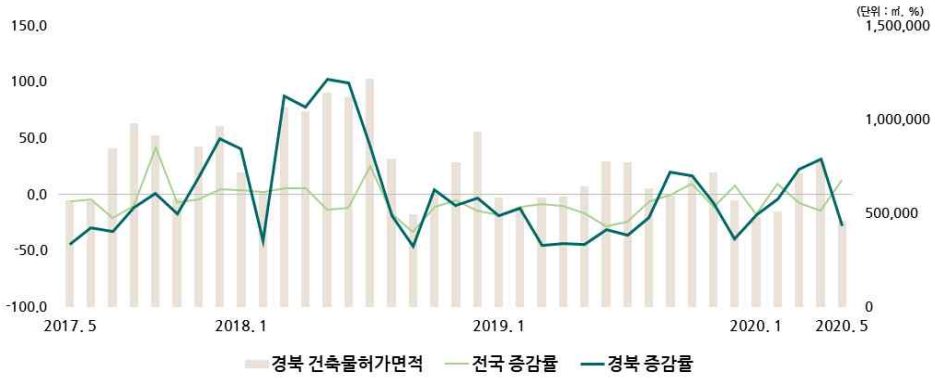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6.8% 하락한 419,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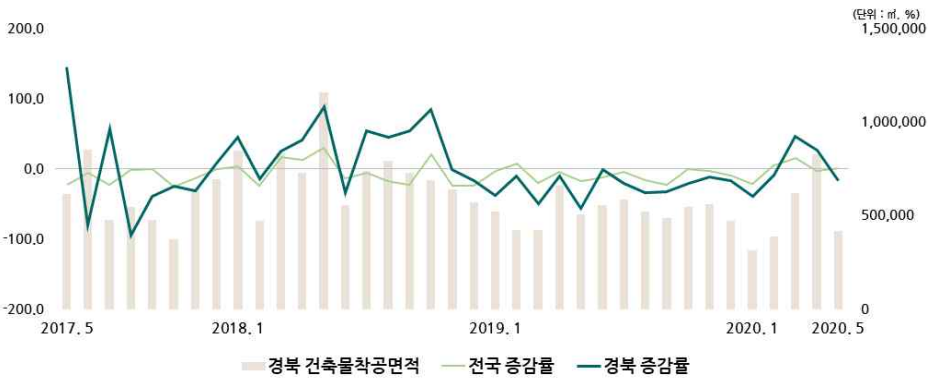
- 용도별로 공업용은 증가, 주거용, 상업용은 감소
- 공업은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한 61,135㎡, 주거용은 14.6% 감소한 62,581㎡, 상업용은 16.3% 감소한 88,972㎡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 분	2019		2020				
	11	12	01	02	03	04	05
건축허가면적	718,787 (-7.0)	569,993 (-39.1)	479,575 (-17.7)	510,993 (-4.0)	714,233 (22.3)	**775,875** **(31.4)**	**462,157** **(-27.8)**
건축착공면적	561,737 (-11.9)	473,337 (-17.5)	314,808 (-39.5)	387,903 (-8.6)	618,876 (45.7)	**828,619** **(26.0)**	**419,735** **(-16.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5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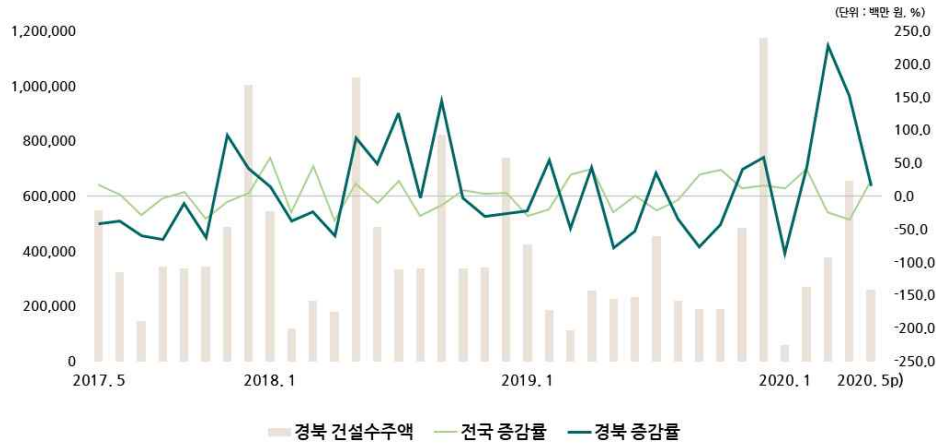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 상·하수도, 기계설치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6% 상승한 261,880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103,521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9% 하락, 토목부문 158,359백만 원으로 57.8% 상승
- (발주자별) 공공부문 126,424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0% 상승, 민간부문 135,456백만 원으로 5.5% 하락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p	05p
5,507,128	485,424	1,174,648	59,296	269,728	377,502	654,956	261,880
(11.4)	(41.5)	(58.6)	(-86.1)	(44.7)	(228.3)	(153.0)	(15.6)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5월 수출액,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 수출액은 2,41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8%, 수입액은 872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8% 각각 하락, 무역수지는 1,545백만 달러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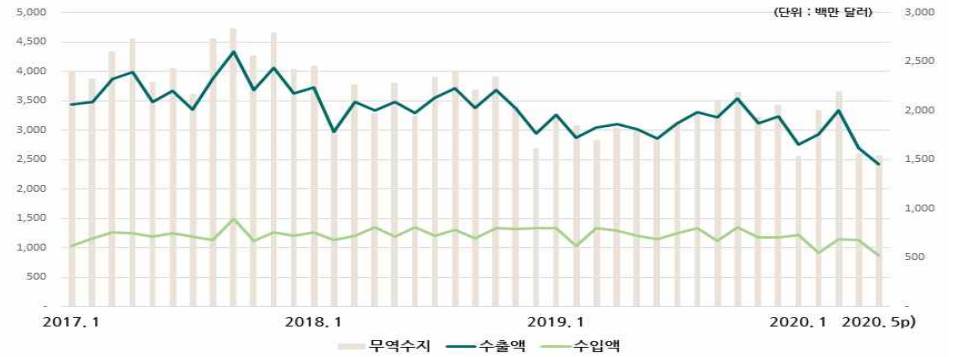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강판(-19.5%), 무선통신기기(-0.6%), 반도체(57.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10.8%) 등[1)]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광(-0.7%), 석탄(-44.8%), 합금철선철 및 고철(-44.2%), 알루미늄(-16.7%) 등
- 5월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1.6%), 미국(-12.0%), 일본(-21.0%) 순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11	12	01	02	03	04p	05p
수출액	3,123 (-7.1)	3,239 (9.8)	2,760 (-15.5)	2,929 (1.9)	3,341 (9.8)	**2,700** **(-13.1)**	**2,417** **(-19.8)**
수입액	1,184 (-10.2)	1,182 (-11.6)	1,219 (-9.5)	923 (-10.8)	1,146 (-14.4)	**1,140** **(-11.4)**	**872** **(-27.8)**
무역수지	1,936	2,057	1,541	2,006	2,195	**1,560**	**1,54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5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49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하락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0.1%)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82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전월대비 4.8% 하락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	05
1,488	1,511	1,482	1,469	1,463	1,445	1,454	**1,498**
(0.0)	(-0.4)	(1.9)	(1.8)	(0.1)	(-2.0)	(-2.8)	**(-0.1)**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취업자는 142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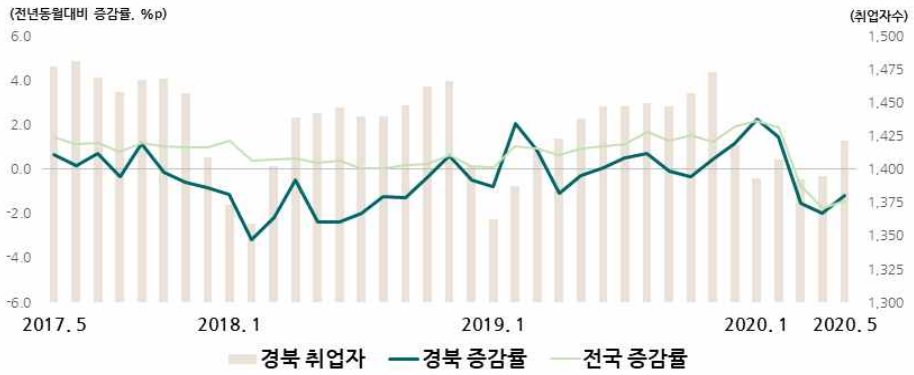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7천 명(-1.2%)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2천 명), 건설업(6천 명), 제조업(5천 명)은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 9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천 명), 농림어업 (-4천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1.2%)은 충북(0.9%), 전남(0.5%), 경기(-0.9%) 다음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	05
1,427	1,473	1,418	1,393	1,407	1,392	1,395	**1,421**
(-1.4)	(0.5)	(1.1)	(2.3)	(1.4)	(-1.6)	(-1.9)	**(-1.2)**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5월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5.1%로 전국평균 각각 상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61.2%로 전국평균 60.2%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6.1%로 전국 65.8%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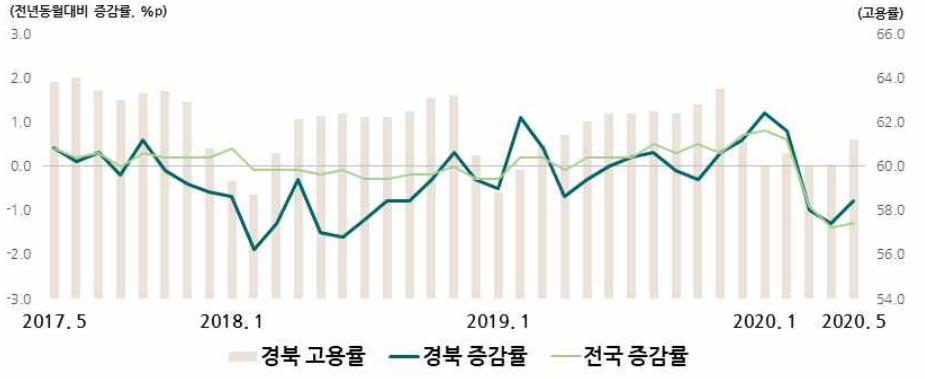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증가한 5.1%로 전국평균 4.5%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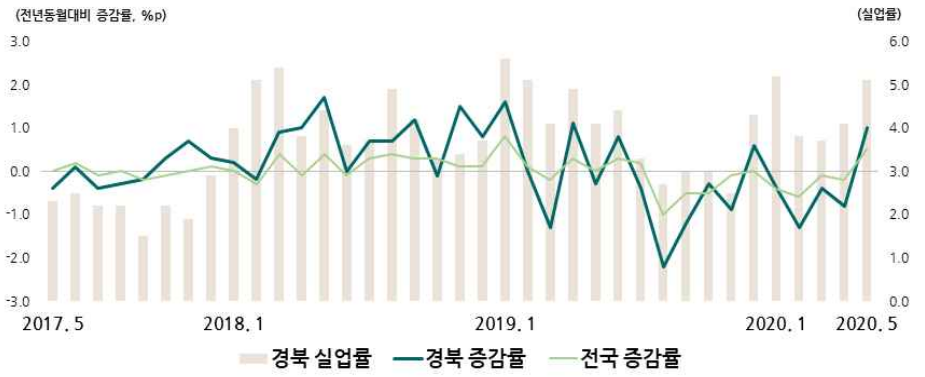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7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 명 증가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p)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	05
고용률	61.6 (-0.9)	63.5 (0.3)	61.1 (0.6)	60.0 (1.2)	60.6 (0.8)	60.0 (-1.0)	60.1 (-1.3)	**61.2** **(-0.8)**
실업률	4.1 (1.3)	2.5 (-0.9)	4.3 (0.6)	5.2 (-0.4)	3.8 (-1.3)	3.7 (-0.4)	4.1 (-0.8)	**5.1** **(1.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5월 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한 88만 9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2.6%)는 증가, 임시근로자수(-2.7%), 일용근로자수(-26.9%)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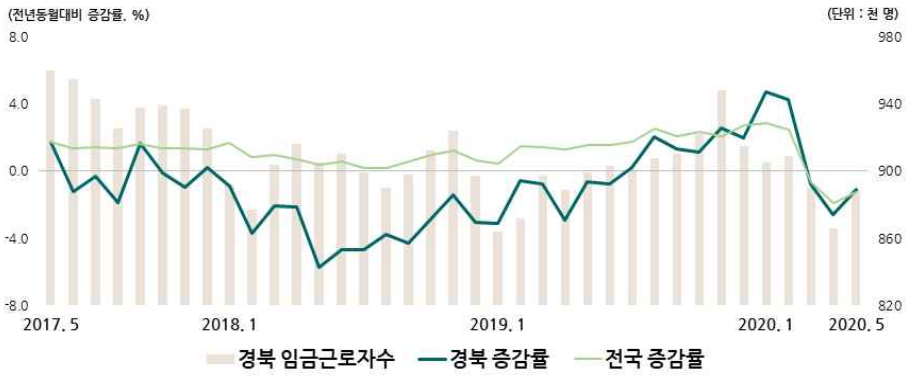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한 40만 2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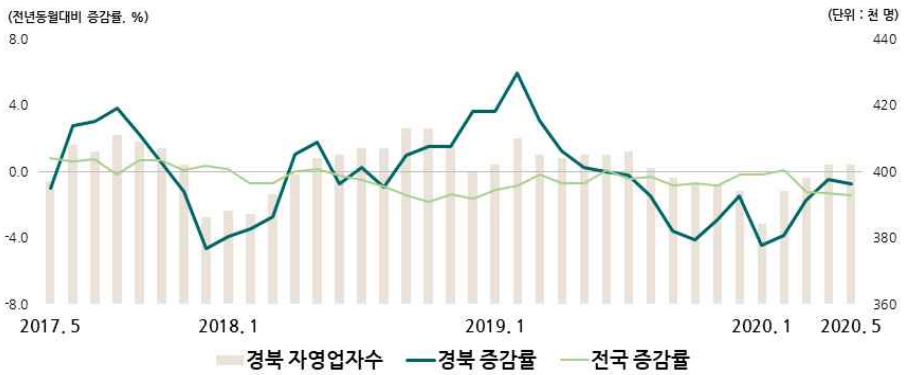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5.4%)는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25.4%)는 감소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	05
임금 근로자	902 (-3.3)	948 (2.6)	915 (2.0)	905 (4.7)	909 (4.2)	890 (-0.8)	866 (-2.6)	**889 (-1.1)**
자영 업자	402 (-0.1)	396 (-2.9)	394 (-1.5)	384 (-4.5)	394 (-3.9)	398 (-1.7)	402 (-0.5)	**402 (-0.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는 103.61로 전년동월대비 0.7% 하락, 전월대비 0.1% 상승

- 전월대비 교통(2.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0.3%), 통신(0.2%), 보건(0.1%),음식 및 숙박(0.1%) 등은 상승,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은 보합, 교육(-1.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4%) 등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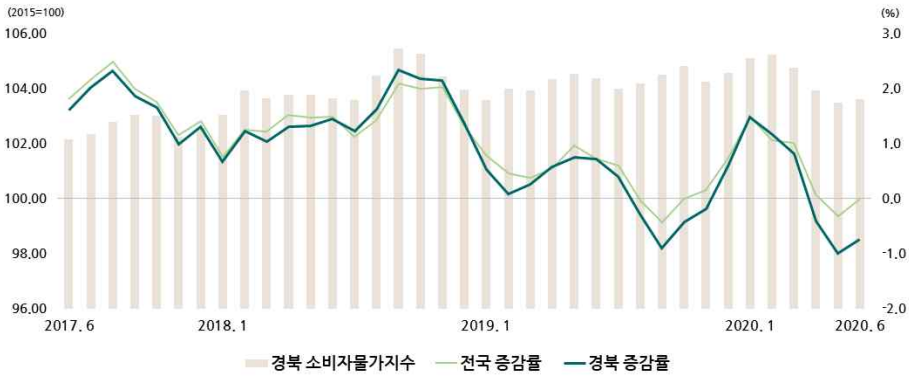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03.38로 전년동월대비 1.4% 하락, 전월대비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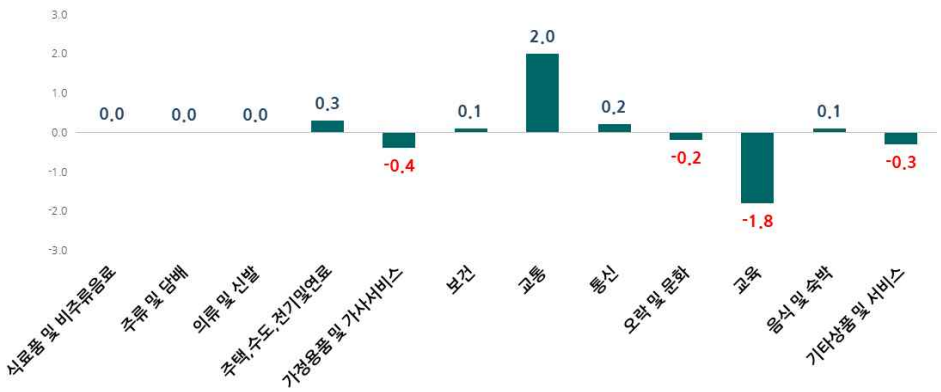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09.88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식품이외는 99.91로 3.1% 하락

물가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2	01	02	03	04	05	06
소비자 물가지수	104.08 (1.5)	104.56 (0.6)	105.12 (1.5)	105.22 (1.2)	104.77 (0.8)	103.93 (-0.4)	103.48 (-1.0)	**103.61 (-0.7)**
생활 물가지수	104.57 (1.7)	105.01 (1.0)	105.57 (2.2)	105.86 (1.9)	105.47 (1.4)	103.92 (-0.5)	103.11 (-1.7)	**103.38 (-1.4)**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4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한 14조 원으로 전월대비 0.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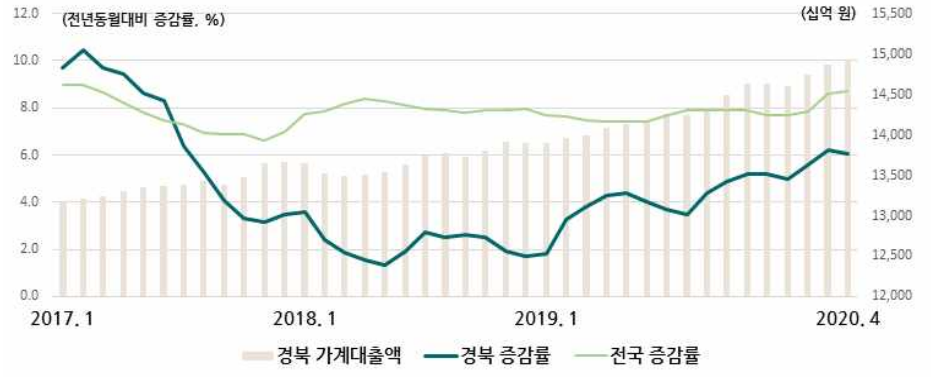
○ 총 대출액 44조 원 중 가계대출은 33.7% 차지

4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8	2019			2020			
연간	10	11	12	01	02	03	04
13,902 (1.7)	14,487 (4.9)	14,632 (5.2)	14,626 (5.2)	14,602 (5.0)	14,746 (5.6)	14,866 (6.2)	**14,934** **(6.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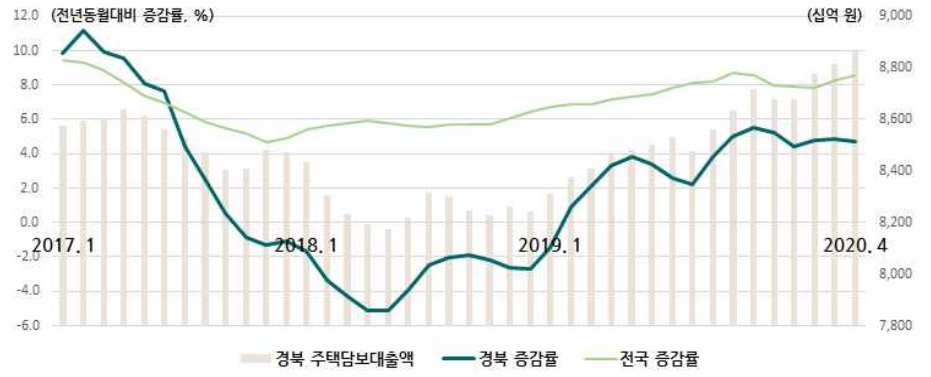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8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총 가계대출 14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9.3%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8	2019			2020			
연간	10	11	12	01	02	03	04
8,244 (-2.7)	8,635 (5.0)	8,718 (5.5)	8,676 (5.2)	8,677 (4.4)	8,776 (4.8)	8,816 (4.9)	**8,863** **(4.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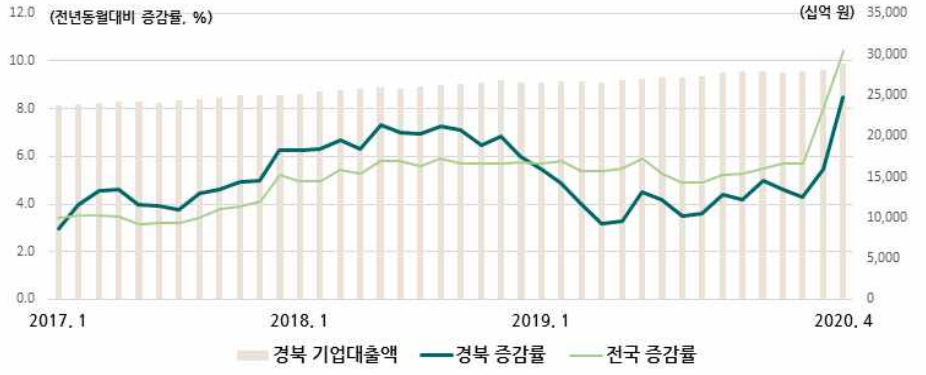
4월 기업대출액은 28.8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8.5% 상승한 28.8조 원으로 전월대비 2.4% 상승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8	2019			2020			
연간	10	11	12	01	02	03	04
26,549 (6.0)	27,693 (4.4)	27,890 (4.2)	27,870 (5.0)	27,771 (4.6)	27,886 (4.3)	28,123 (5.4)	**28,808** **(8.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6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 6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한 96.7

- 경산(-2.0%), 구미(-1.9%)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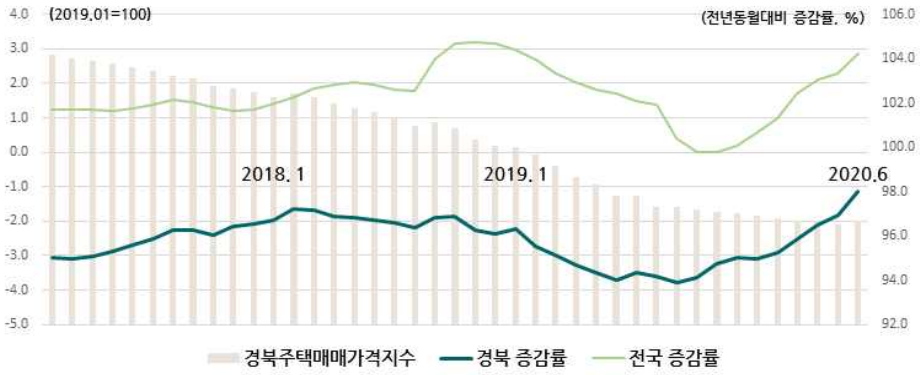
○ 6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한 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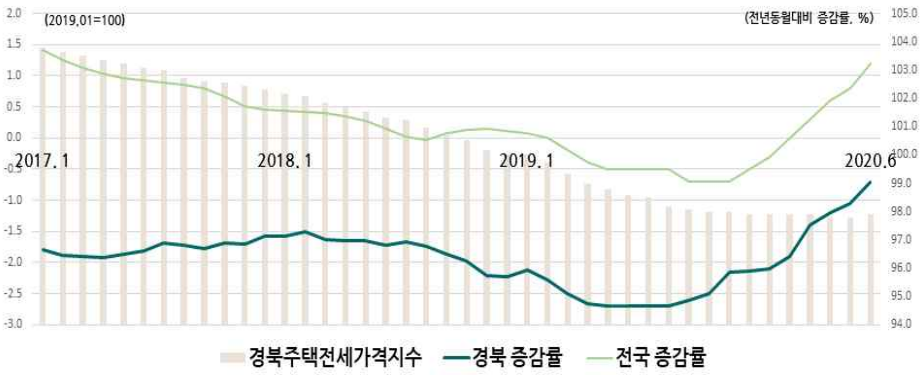
- 구미(-1.3%), 포항(-0.5%), 경산(-0.1%)은 하락

주택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19		2020					
	11	12	01	02	03	04	05	06
매매	97.1 (-3.3)	97.0 (-3.1)	96.9 (-3.1)	96.8 (-2.9)	96.7 (-2.5)	96.6 (-2.1)	96.5 (-1.8)	**96.7** **(-1.1)**
전세	98.0 (-2.2)	97.9 (-2.1)	97.9 (-2.1)	97.9 (-1.9)	97.9 (-1.4)	97.8 (-1.2)	97.8 (-1.1)	**97.9** **(-0.7)**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6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 6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2.0% 하락한 95.2

- 경산(-3.0%), 구미(-2.1%), 안동(-2.1%), 포항(-0.8%)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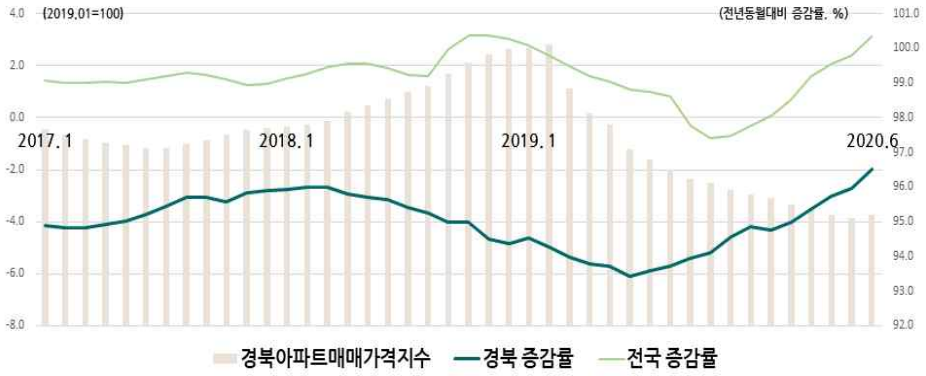
○ 6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한 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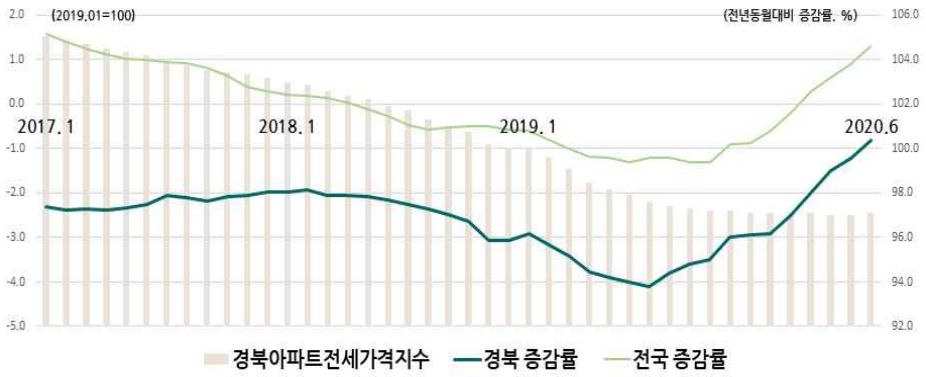
- 구미(-1.3%), 포항(-0.7%), 경산(-0.2%) 하락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19		2020					
	11	12	01	02	03	04	05	06
매매	95.9 (-4.6)	95.8 (-4.2)	95.7 (-4.3)	95.5 (-4.0)	95.4 (-3.5)	95.2 (-3.0)	95.1 (-2.7)	**95.2** **(-2.0)**
전세	97.2 (-3.0)	97.1 (-2.9)	97.1 (-2.9)	97.1 (-2.5)	97.1 (-2.0)	97.0 (-1.5)	97.0 (-1.2)	**97.1** **(-0.8)**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5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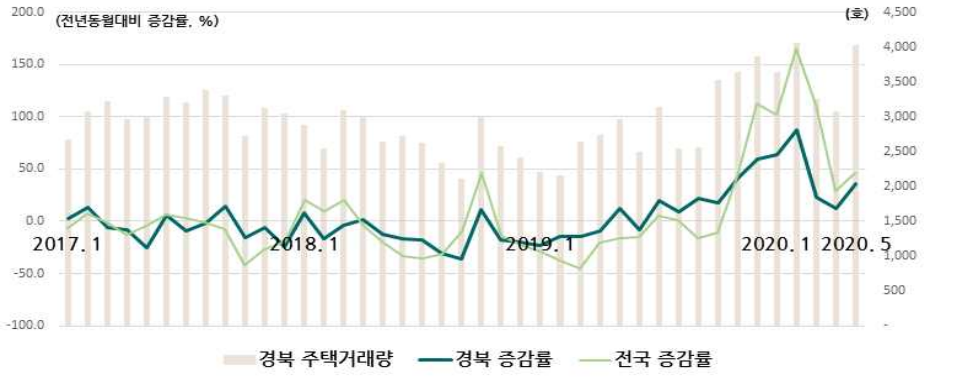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4,020호로 전년동월대비 35.4% 상승, 전국도 상승세(46.2%)

- 구미(122.2%), 포항(22.2%), 안동(14.4%), 경산(14.1%)은 주택매매거래량 상승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18	2019		2020				
연간	11	12	01	02	03	04	05
64,437	3,634	3,869	3,634	4,050	3,259	3,083	**4,020**
(-15.4)	(41.1)	(59.6)	(64.2)	(87.4)	(23.3)	(12.5)	**(35.4)**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중소기업

5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32%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16%p, 전월대비 0.13%p 각각 증가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7%이고, 충남(0.42%), 경북(0.32%), 경기(0.12%), 전북(0.10%), 충북(0.10%), 전남(0.08%), 제주(0.05%), 강원(0.0%) 순
- 어음부도액은 전월대비 18.1억 원 증가

○ 부도업체수는 전년동월대비 1개, 전월대비 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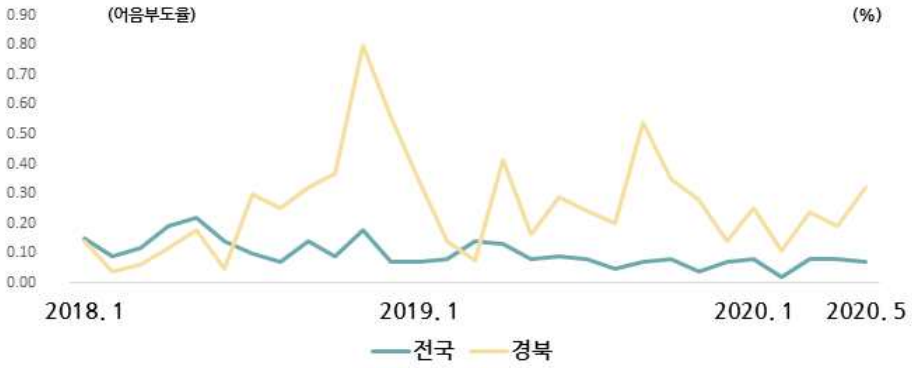
- 총 부도 금액은 46.5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7억 원 증가

4월 신설법인 전년동월대비 7개 감소, 전월대비 28개 증가한 336개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19				2020			
	10	11	12	01	02	03	04	05
어음부도율	0.35	0.28	0.14	0.25	0.11	0.24	**0.19**	**0.32**
부도업체수	3 3	0 -5	3 1	0 0	1 1	4 4	**2** **-2**	**0** **-1**
신설법인수	301 -18	267 -2	347 35	360 -43	351 84	308 -20	**336** **-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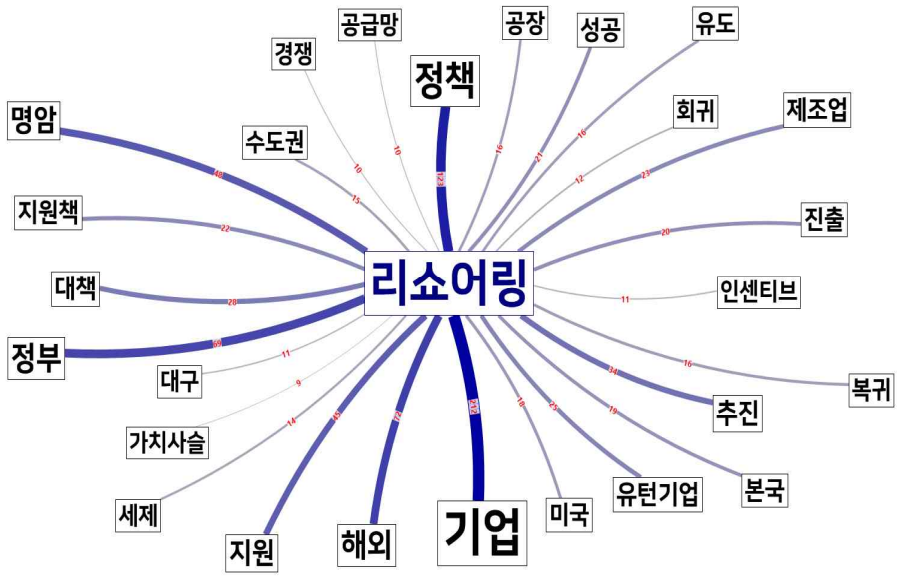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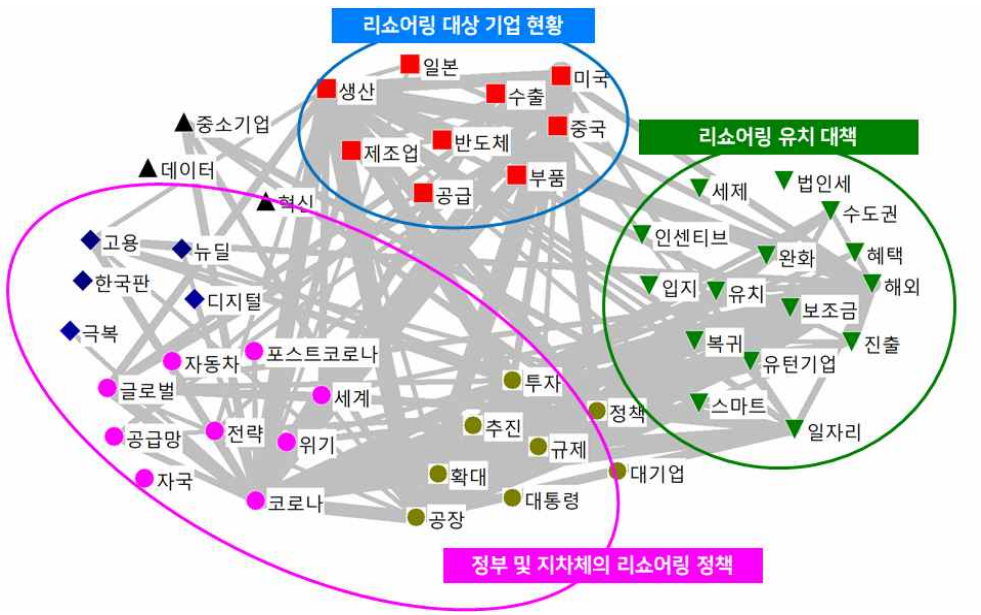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리쇼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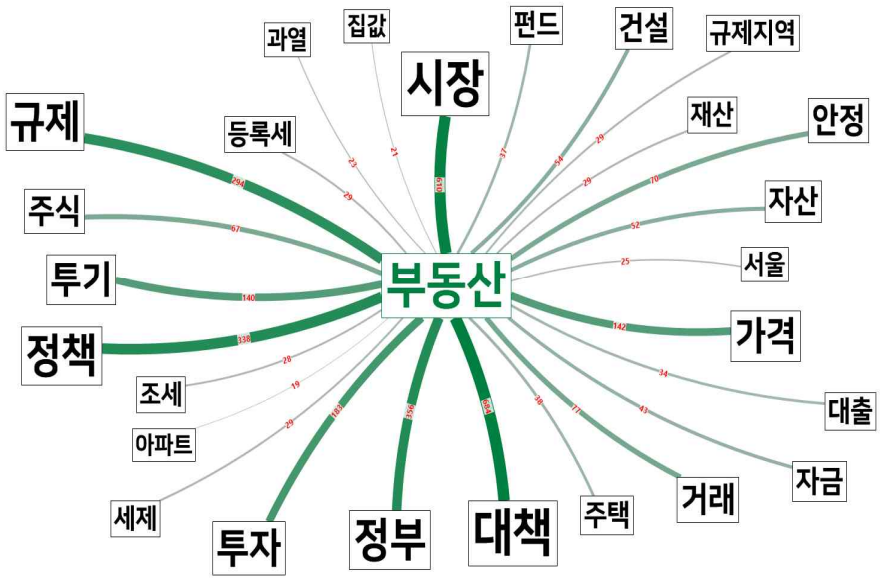


주요단어 : 기업(212), 정책(123), 명암(48), 대책(28), 유턴기업(25) 등
해외 자국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 및 지차체의 유치 정책과 혜택에 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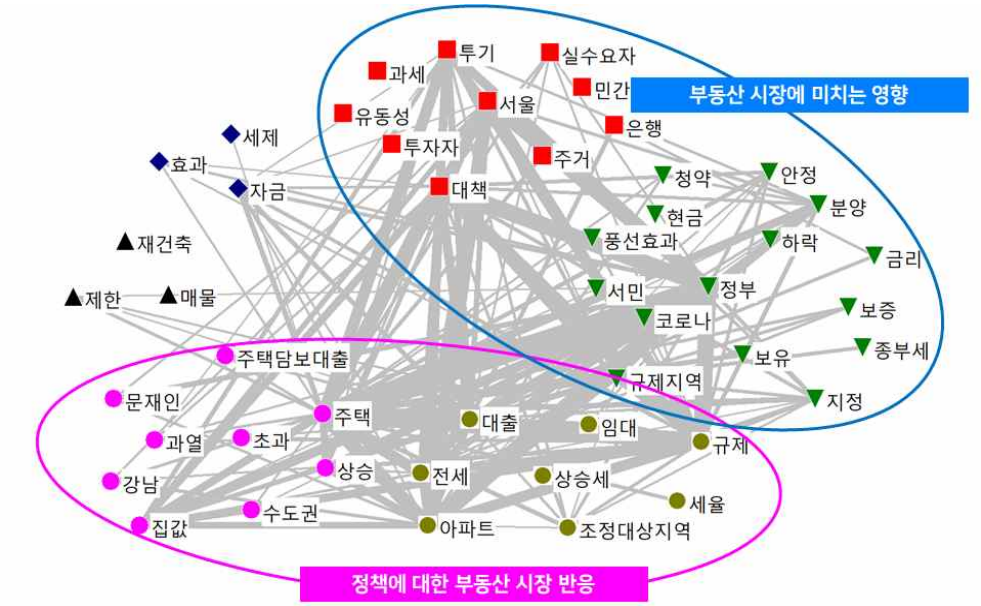


주요 주제 : 무역과 자본의 흐름이 멈추면서 나타난 탈세계화 흐름에 맞추어 해외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유치 경쟁에 관한 주제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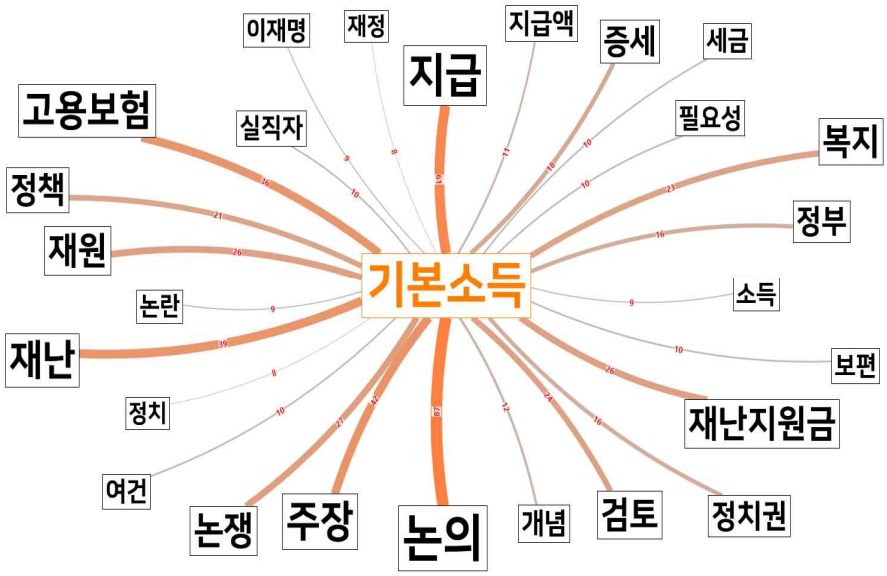


주요단어 : 정책(338), 규제(294), 투기(140), 규제지역(29), 세제(29) 등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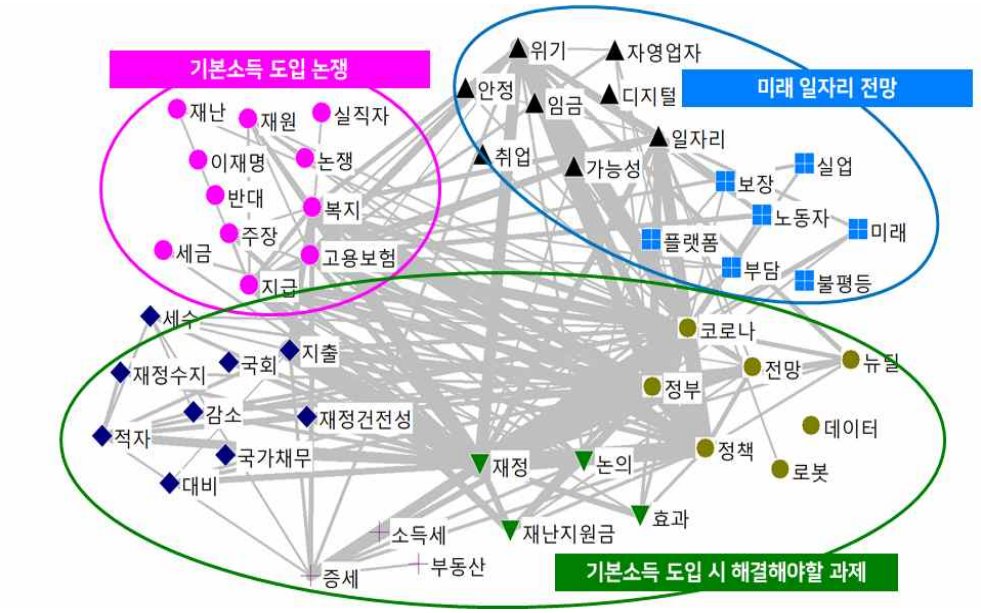


주요 주제 :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금까지 나타난 부동산 대책의 효과 및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에 관련한 주제

기본소득



주요단어 : 논의(87), 지급(61), 고용보험(36), 복지(23), 증세(18)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촉발된 복지 정책 차원의 기본소득 논쟁



주요 주제 :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정치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와 미래 일자리 전망에 맞춘 기본소득 도입, 도입 시 해결해야할 현실적인 과제에 관련한 주제

※ 분석 기간 : 2020년 6월 1일 ~ 2020년 6월 26일
(좌측)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우측)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리쇼어링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연관 검색어 : 글로벌 밸류체인, 유턴기업, 지원책, 혜택〉

▌현황

○ 21대 국회 개원 이후 리쇼어링을 다루는 일명 유턴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앞다투어 발의 중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7건 발의
- 개정안 대부분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완화, 지원 규모 및 범위 확대 등의 내용 포함
- 가장 최근에 발의된 김도읍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유턴이 집중될 것을 억제하고자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유턴을 보다 장려하는 내용 포함

○ 리쇼어링(Reshoring)은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

- 세계 산업 생산의 패러다임 변화와 밀접한 관련
-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으로 여러 국가 간 분업과 특화를 기반으로 생산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확산 본격화
- 2010년대를 들어서며 중국 등 생산기지의 인건비 상승, 불확실성 증대 및 견제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GVC의 확산이 주춤해지는 대신 중국, 독일, 미국 등을 거점으로 하는 권역 내에서 가치사슬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역내가치사슬(Local Value Chain, LVC)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세계 산업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추세

○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 약화와 일자리 손실을 경험한 선진국은 대응책으로 리쇼어링을 포함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10년대 이후 지역 가치사슬의 강화라는 정책 방향으로 발전

- 미국은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2012), 'Make it in America Initiative'(2010) 등을 통해 세금감면, 리쇼어링 비용지원, 고숙련 노동자 훈련 등 지원
  ※ 월풀(2013년), 제너럴모터스(2014년), 포드(2015년) 등이 생산 공장을 미국 내로 다시 이전[2)]
- EU와 독일 등은 중장기 산업 정책에서 EU 권역 내 순환경제의 건설 또는 Made in Europe을 주된 과제의 하나로 제시[3)]
- 지역 가치사슬로의 회귀 추세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간 장벽이 견고해지면서 더욱 선명해졌고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리쇼어링 정책을 한층 더 강하게 또한 새롭게 추진 중

○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밝힌 상태이고 입법부에서도 앞서 언급된 것처럼 '유턴법' 개정안 발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리쇼어링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표

※ 충청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 가운데 충남지역으로 돌아와 공장을 짓는 기업에 국비·지방비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합해 최대 552억 원 지원

※ 대구시는 해외 설비 국내 이전과 설치비용으로 최대 5억 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을 최대 4년 보전하고, 직원 기숙사 신축과 숙소 임대비 일부 지원 등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2)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3) EU 위원회, 2020,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독일, 2019, "국가산업전략 2030"

▌발전방향

○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으로 조사
- 국내 기업의 약 94.4%의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는 의견 표시
- 기업은 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이 해외사업장의 이점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 우리나라에서 해외 생산기지와 같은 저렴한 노동력과 완화된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디지털화와 기후중립성이 향후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의 주요 화두
- 우리나라의 산업의 향후 과제는 정부가 천명한 것처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당면 과제와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정책을 융화하는 것이 필요
- 스마트 공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 모습의 리쇼어링을 지향
-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와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내에 남아있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세심한 대비 필요

2. 부동산 :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영향

〈연관 검색어 : 6.17 부동산대책, 갭투자,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책〉

▌현황

○ 정부, 6.17 부동산대책 발표

- 문재인 정부 출범 37개월 만에 21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
- 규제지역 대폭 확대를 비롯한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4] 차단 방안 등 포함

○ 취지

- 최근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주태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풍선효과'가 발생, 도농복합지에는 '빨대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양극화 심화
- 최근의 부동산 투기현상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
- 특히,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앞두고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제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반영

○ 주요 내용

-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
-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
-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과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 방지

▼ 주요 부동산대책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
-조정대상지역[5] 및 투기과열지구[6] 추가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조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거주요건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격 실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법인거래 조사 강화

▌영향

○ 정책 부작용 우려

-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도 대전과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수도권 외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 세종시, 대전 동·중·서·유성 포함
- 정부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등의 '풍선효과' 확연

4)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적은 집에 대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5)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6)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경기·인천 지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수요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역풍선효과' 우려
-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가 마련이 어려워 전세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은 부족 → 전세 가격 상승 유발
- 강력한 규제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기본권 침해 논란

○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상

-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예상
-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분양자들 또한 종전 LTV[7]가 60~70%에서 30~40%로 낮아짐에 따라 자금 부족으로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최장 8년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피해 예상

▮ 대응

○ 정부의 보완책 마련 시급

- 주택 실수요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보완책 제시 필요
-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대체투자처 발굴 및 수요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 방향 모색 필요

7)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3. 코로나19로 촉발된 기본소득제의 쟁점과 대구경북의 과제

〈연관 검색어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고용보험, 사회보험〉

▮ 기본소득 개념 및 쟁점

○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등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 정기적, 현금지급, 개인단위,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자산 및 근로조건이 필요 없는 무조건성, 충분성 등의 6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일하지 않아도 받는다는 것이 특성

※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현재 소득과 상관없이,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디에 쓰든 간섭하지 않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지급하는 소득

- 'AI 일자리 잠식 대비' 도입 주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기본소득 도입 찬성 62%)
- 세금감면이나 증세로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재난지원금 연구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

※ 민간정책연구기관인 LAB2050이 2020년 4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의견은 61.8%로 집계

○ 기본소득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원리와 상충된다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으로 기본소득은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한 재원과 시행방식 뿐만 아니라 보편적, 무조건적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
-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사회보험 혹은 복지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환점으로 삶의 방식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
- 생산성 증가 등 생산시스템 및 부의 창출에 획기적 변화, 로봇의 일자리 대체로 사람의 일자리 감소(로봇세 도입 필요성 논의) 대응

▮ 기본소득의 기원과 사례

○ 18세기 영국의 사회주의 아버지 토마스 페인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배당금(기본소득)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신자유주의 원조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일정 소득 수준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밀턴 프리드만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차액만큼 부의 소득세 지급' 주장

○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복지국가 개념이고 여기에는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

- 사회보험은 1880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것으로 산재보험, 의료보험, 노령연금 등이 대표적이며,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가 됨
-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진보는 앞으로 노동 없는 미래가 도래하여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고 증가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기본소득 찬성자들의 견해임

○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전체 공적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1% 상태. 만약 GDP의 25%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면(총 GDP 2,000조 가정) 500조에 해당하고 1인당 80만 원 지급 가능

○ 현재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국가는 없음

- 스위스는 기본소득이 제안(전체국민 300만 원(18세 이상), 78만 원(18세미만)) 되었지만 국민투표로 부결되었음
- 핀란드는 25~58세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72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시는 시범사업으로 18~64세 저소득자에게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알래스카주는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연간 배당금 지급(석유 등 천연자원 운영 수익으로 재원 확보)
-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10~15%안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할 경우 32~48만 원 지급 가능

▌기본소득의 찬성과 반대의 주장

○ 찬성론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다는 전제 혹은 국민의 권리임을 강조

-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
- 우리나라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격차도 엄청난 반면 복지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른 시간 안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필요
- 국민들이 증세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세수 전체를 기본소득 지급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신설 필요
-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면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

○ 반대론은 예산을 증세로 조달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 없으므로 불평등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 한정한 현재의 사회보장급여가 바람직

- 우리나라의 경우 증세 여력을 감안하면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모두를 병행할 수는 없음
- 부분 기본소득제 시행 200조원을 확보하려면 100조원을 증세하더라도 나머지 10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정책을 상당 부분 허물고 구조조정 불가피
- 보편적 사회보장체계가 복지효과·경제효과·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우월
-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오면 지금의 사회보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날이 왔을 때 기본소득 국가가 대안으로 가능

○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더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시범정책 도입 필요

- 국민 1인당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 소요 예산은 최소 186조 원.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311조 원 필요

▌기본소득 제도의 방향

○ 전 국민에 대해 일정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 검증, 소득분위가 낮은 타깃 계층인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대책의 효과 확인 필요

-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소득 1분위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바람직. 즉 전 국민 지급보다는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따른 정책 실효성과 '재분배의 역설'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급여나 제도 및 고령화로 인해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강화 정책과 연계된 기본소득제 시행 검토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채택하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전 국민대상 국민기본소득제의 즉각적인 시행은 여러 재정상태나 생산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 도입 국가는 있음)

○ 대구경북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기본 논의 진행과 계획 필요

- 정부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에 대비한 대구경북형 기본소득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거나 관련 기본연구 및 계획 수립 필요
-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효과성 검증 및 제도의 선후 관계 장·단점 확인
- 대구경북 지역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소득제의 가능성 및 시행방식을 논의하고, 지역 거주 가구의 1인당 소득액을 산정하고 일정 기본소득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과에 대한 실증 사례 분석이 필요(재분배 역설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각 연령계층 및 소득수준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으며, 기존에 여러 복지제도와 연계 검토 필요

- '복지 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소득'의 개념 혹은 '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집중적 논의 필요
- 이와 연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시행과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

※ 각 지자체 마다 특정 목적의 기본소득(예 : 청년 기본소득 등)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검토 필요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위 원 :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전 문 위 원 : 한장협
연 구 원 : 이승아
연 구 원 : 박효찬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